

주목할 CMA-CGM & 매출 절벽...

코멘터리 대표 차트

**수주설은 ...**

① 현대중공업이 중국 SWS와 CMA-CGM 22,000teu 6+3척에서 최종 경합 중이며, 곧 결과가 발표됩니다. 수주여부도 중요하지만 LNG-Fuel을 채택할지가 관심입니다. 중국은 싼 금융과 선가를 경쟁 포인트로, 그리고 Scrubber 또는 LNG-Ready를 제안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LNG-Fuel 스펙이 가능합니다. 발주금액도 14억\$로 크지만, LNG-Fuel의 확산과 한국 조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CMA-CGM이 Total과 LNG 벙커링 계약을 했다는 풍문이 있어 현대중공업의 수주를 기대해봅니다.

② 프랑스 EDF가 미국 셰일가스 수입용으로 진행해오던 LNG선 1척이 현대중공업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매출 절벽 또는 실적과 관련해서는**

③ 드라이도크 1개를 가동 중단한 삼성중공업은, 플로팅 1기 추가 섀다운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입니다.

④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군산조선소를 2019년부터 재가동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불황의 이유, 2017년 상황 회복의 착시, 2018년까지의 어려움 등을 조목 짚었습니다. 당사도 2018년~2019년 상반기까지의 감익 구간을 잘 이겨내는 숙제가 남았다고 판단합니다.

⑤ 해양구조물 Position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POSH에 의해서, Egina FPSO의 4분기 나이지리아 현지 Positioning 일정이 알려졌습니다. 올해 하반기 나이지리아 현지 모듈과 한국에서 제작한 Hull+모듈의 Intergration이 진행됩니다. 조금 두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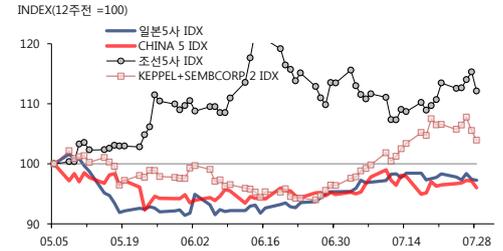
**건설기계 산업은..**

초호황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의 건설기계 메이커 3사 실적 발표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어닝 서프라이즈, 현대건설기계 사실상 서프라이즈, 두산밥캣은 기대치를 하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최선호주는 두산밥캣입니다. 그 사유를 오늘 발간한 건설기계 산업자료에서 기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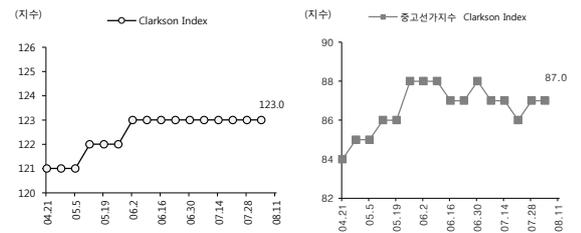
▶ 문재인 대통령,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과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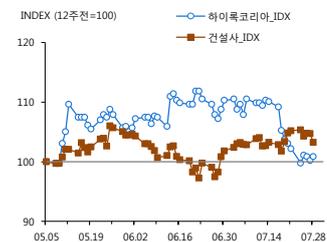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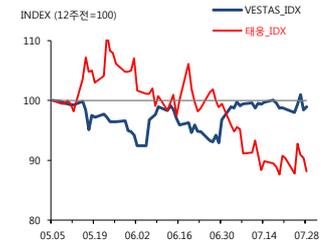
▶ 한/중/일/싱 주가 추세: 시장 강세에 한국 조선도 아웃퍼폼



▶ 신조선가치수 & 중고선가치수 보합



▶ 지저분한 기계 증폭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 매출 절벽 & 해양

- ▷ 삼성중공업 도크 1개 추가 폐쇄
- ▷ 현대중공업 "나스르 프로젝트, 야드 제작 중 내년 출항 예정"
- △ 최길선 현대중 회장 "군산조선소, 2019년 재가동 준비"
- △ Egina FPSO, 나이지리아 현지 도착 예정 간접 확인

▶ LNG~

- ▲ EDF Energy → HHI, LNG선 1척
- △ EDF LNG선 보도에 포함된 후속 LNG 프로젝트들

ASP & 실적관련(국내외)

▽ Clarksons 신조선가지수, 중고선가지수 모두 보합

- 중고선가, 신조선가 전선종 제자리 지키며, 지수도 보합

▷ 삼성중공업 도크 1개 추가 폐쇄

- 외신은 삼성중공업이 플로팅 도크 1개 섣다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
- 최근 육상 도크 1개를 폐쇄한 이후 후속으로 1개 플로팅 도크도 가동 중단되는 것
- 한편 작년 1,500명 스태프를 감축한 삼성중공업은 2018년까지 총5,000명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익히 알려진 계획을 외신은 언급

△ Egina FPSO, 나이지리아 현지 도착 예정 간접 확인

- Total의 30억\$ Egina FPSO가 하반기 나이지리아 현지에 도착하는 일정한 것으로 POSH를 통해 재차 확인
- 싱가포르의 POSH(PACC Offshore Services Holdings)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JV를 통해 FPSO의 positioning 작업을 4분기에 진행할 것이라고 업데이트 해줌
- POSH는 호주 prelude FLNG와 Ichthys의 positioning 작업도 담당

▷ 현대중공업 "나스르 프로젝트, 야드 제작 중 내년 출항 예정"

<http://lnr.ii/ZrRSK>

- 현재 진행 중인 해양플랜트 사업은 2건
- 관계자는 2일 "하반기 출항예정인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는 탑사이드(해양플랫폼 윗부분) 프로젝트"라며 "제작은 끝났고 8월 중 출항예정이다"고 밝힘
- 나머지 하나는 나스르 프로젝트가 진행 중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LNG: LNGBV, DF엔진

▲ EDF Energy → HHI, LNG선 1척

- 산업에서는 EDF가 조선사를 선정해서 berth 예약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알려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대중공업이 신조를 맡을 것으로 정해졌다고 함
- 최근 2주간 선주들에게 180k, 2020년 인도 LNG선을 요청해왔고, 최종 결정 내린 듯
- EDF는 미국 Cheniere Energy의 Corpus Christi LNG에서 0.77MTPA 수입

△ EDF LNG선 보도에 포함된 후속 LNG 프로젝트들

- 다음달 Total의 LNG선 4척 발주 결정
- 후속으로 스페인 Gas Natural Fenosa, Anadarko의 Mozambique LNG, ExxonMobil의 huge Golden Pass LNG 등이
-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그다음 LNG 발주 프로젝트들이 될 것이라고 집계

▶ 업황

▷ Vitol의 VLGC관련: LPG 시황에 대한 말말말..

- 이번 Vitol의 VLGC 발주는, 2015년 Zero에 이어, 올해 3번째, 4번째 발주
- : 싱가포르 Petredec의 중국 Jiangnan으로의 2척, Kumiai Navigation은 Kawasaki HI로의 1척에 이어 3번째 VLGC 발주
- 선주들에게 End-User 격인 Energy & Commodities 사가 직접 신조발주를 한 것에 대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VLGC 업황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해석하기도...
- VLGC 선대는 2014년 이래 50%나 늘었고, 운임은 2015년 \$100천/일에서 \$10천/일로 급락한 상황
- VLGC는 2016년 45척이 인도되었고, 올해 현재까지 15척이 인도
- 일본 Astomos도 운영 중인 21척의 LPG선 중 6척을 자사선으로 보유한 것처럼
- BW LPG와 Dorian들의 선대 성장과 시장 장악력 확대 때문에, 트레이딩 하우스가 직접 선대를 보유하는 것은 괜찮은 전략으로 보이지만
- 확정 2척 외에 옵션 6척을 모두 행사할 경우 VLGC 시장의 불황은 더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음

한국 조선업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①Vitol Group→Hyundai HI (Ulsan), LPG(84k) 2척

▲ Vitol → 현대중공업, 최대 \$600m(또는 \$540m) VLGC

- Energy & commodities 회사 Vitol이 현대중공업에 84k LPG선 2척+옴선 6척 발주: 2019년 인도
- 자사선으로 10척의 탱커, 250척의 용선 선박을 활용하는 Vitol은 이번이 첫 자사선 VLGC 발주
- 발주 사유로는 싼 가격: 현대중공업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브랜드 밸류, 기술, 재무 안정성"을 언급
- 선박은 Tier III 스펙을 충족했고, Scrubber를 장착
- 신조선가는 \$75m으로 알려졌다지만, 일각에서는 \$70m을 하회하는 \$67m~\$68m이라는 얘기도 있음: 최근 Petredec이 중국에 발주한 VLGC는 \$60m을 하회
- 현대중공업은 현재 잔고에 6척의 VLGC 보유: SK해운, KSS해운, Solvang, Petredec, Unique Shipping

▼ 신조 발주설(뉴스 단재)

▲ CMA-CGM의 22,000teu 컨선 6+3: HHI vs. SWS

- 14억\$ 이상의 9척 메가 컨테이너선 경합이 애초 7월말 결정 예정에서 데드라인을 넘김: 그러나 프랑스 Holiday season이어서 CMA-CGM의 피드백은 없는 상황
-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중국 SWS(Shanghai Waigaoqia Shipbuilding) 경쟁이 최종
- 현재 관심은 LNG-Fuel propulsion 선택 여부인 가운데
- CMA-CGM이 Total과 LNG 벙커링을 위한 배타적 계약을 맺었다는 풍문도 있음
- LNG-Fuel을 선택할 경우 신조선가는 \$150m~\$160m으로 \$20m 안팎 상승할 것으로 짐작됨
- 반면, Scrubber를 채택할 경우 \$5m 정도가 올라갈 듯
- 양 조선사들 중 어느쪽으로 선택할지도 LNG-Fuel 채택 여부에 달려있다는 평가인데,
- 현대중공업은 SCF와 첫 탱커 LNG-Fuel을 계약한 바 있고, SWS는 10년 가까이인 솔루션 개발을 준비해왔지만 레코드는 없는 상황
- LNG-Fuel을 적용할 경우, 컨테이너 박스 적재 공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
- 22,000teu로 기존 삼성중공업 → OOCL의 21,413teu의 기록을 깨는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
- 경쟁에서 중국의 경쟁 포인트는 중국 금융 제공 및 싼 비용이 될 것이지만, 선박 스펙은 Scrubber 또는 LNG-ready 형태가 된다는 단점
- >> 현대중공업의 LNG-Fuel 수주를 열렬히 기대합니다. 이는 곧 한국의 메가 컨테이너선 과점 유지 및 LNG-Fuel로의 기술 확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1건의 경쟁이 아니라, 큰 의미가 담긴 수주 프로젝트입니다.

△ TS Lines, 피더선 발주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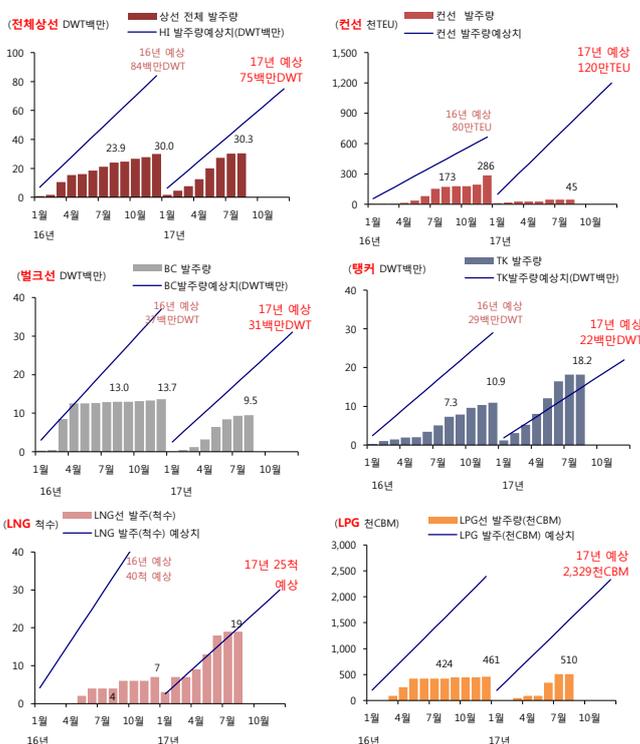
- Intra-Asia liner인 홍콩의 TS Line이 선대 확대의 이유로 4척의 1,000teu & 2,800teu를 발주 준비중이라는 풍문
-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 조선사들과 협의 중
- 또한 동시에 TS Lines는 4,000teu~6,000teu 중고선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

▲ EDF Energy → HHI, LNG선 1척

-위의 LNG 섹션 참조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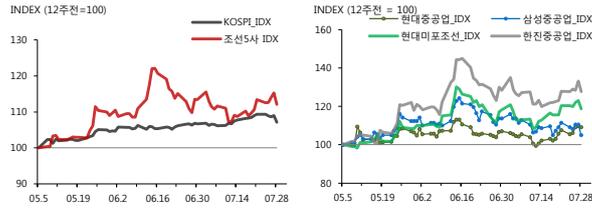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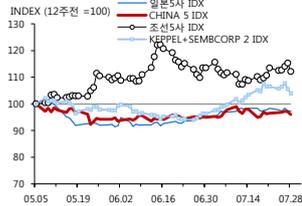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b>17년07월1주</b>								
BIG6	Samsung HI	17.6.30	아시아	AET Tanker	TK	125k DWT	2019	2
민영	Jiangsu New YZJ	17.5.1	Unknown	Unknown	BULK	82k DWT	2019~2020	3
		17.6.1	유럽	Lomar Shipping	CONT	2k TEU	2018~2019	3
일본	JMU Ariake Shipyard	17.6.29	일본	Kyoei Tanker	TK	310k DWT	2019	1
<b>17년07월2주</b>								
BIG6	Hyundai Vinashin	17.7.14	일본	Fukujin Shipping	PTK	50k DWT	2019	2
			Hisamoto Kisen K.K.	PTK	50k DWT	2019	1	
			Unknown	Masumoto Shpg Co	PTK	50k DWT	2019	2
	Daewoo (DSME)	17.7.13	유럽	Maran Tankers Mngt.	TK	318k DWT	2019	4
한국	Daehan Shipbuilding	17.6.26	아시아	BW Pacific	PTK	115k DWT	2020	6
중국	Shanghai Waigaoqiao	17.5.1	일본	Santoku Shipping	BULK	186k DWT	2019	2
중국	Jiangsu Hantong HI	17.4.1	일본	Nisshin Shpg.Co.Ltd.	BULK	82k DWT	2018~2019	5
<b>17년07월3주</b>								
BIG6	STX SB (Jinhae)	17.7.21	한국	Woolim Shipping	PTK	11k DWT	2019	1
			Sambong Corp.	PTK	11k DWT	2019	1	
중국	Dalian Shipbuilding	17.5.1	유럽	Maersk Tankers	PTK	115k DWT	2019	4
중국	Jinglu Shipyard	17.7.14	중국	Rongcheng Xinrun	PTK	12k DWT	2019	1
	Wuhu Shipyard	17.7.15	중국	Zhonghui Shpg	BULK	61k DWT	2019	1
	Jiangsu New Hantong	17.4.1	중국	HTM Shipping Co. Ltd	BULK	82k DWT	2018~2019	2
	Chengxi Shipyard	17.6.9	한국	Korea Line	BULK	81k DWT	2019~2020	2
		17.5.1	중국	RGL Shipping	BULK	82k DWT	2019	2
		17.4.1	아시아	Fountain Marine	BULK	82k DWT	2019	2
	Tongfang Jiangxin SB	17.1.1	중국	Tsinghua University	OTHERS	0k LOA	2018	1
일본	Saiki Hvy. Ind.	17.3.1	유럽	M/Maritime	BULK	37k DWT	2019	2
<b>17년07월4주</b>								
BIG6	Daewoo (DSME)	17.7.11	북미	Excelerate Energy	LNG	138k cum	2018	1
중국	Shanghai Waigaoqiao	17.6.15	유럽	Oceanbulk Maritime	BULK	208k DWT	2019~2020	4
	CSSC Offshore Marine	17.7.24	유럽	TORM A/S	PTK	50k DWT	2019	4
중국	Jiangsu New YZJ	17.7.17	Unknown	Unknown	BULK	82k DWT	2018~2019	4
		17.7.28	유럽	Great Wave Nav.	BULK	180k DWT	2019	3
일본	Kitanihon Zosen	17.5.1	일본	MOL Chemical Tankers	PTK	35k DWT	2018~2019	4
	Usuki Zosensho	17.6.1	일본	Shokuyu Tanker Co.	PTK	13k DWT	2019	1
	Oshima Shipbuilding	17.4.1	일본	NYK Bulk & Projects	BULK	56k DWT	2018~2019	2
<b>17년08월1주</b>								
BIG6	Hyundai HI (Ulsan)	17.7.31	유럽	Vitol Group	LPG	84k cu.m.	2019	2
중국	Jiangsu New YZJ	17.7.17	유럽	Evalend Shipping	BULK	82k DWT	2018	2
일본	Namura Shipbuilding	17.8.1	유럽	Pleiades Shpg. Agcy.	BULK	85k DWT	2019	2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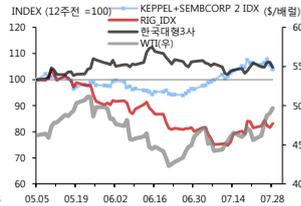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 조선업 한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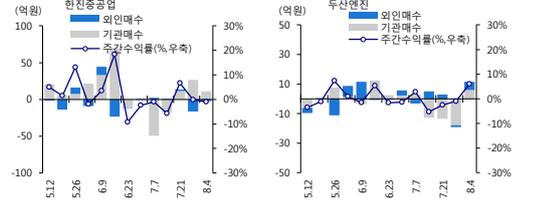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조선 수급

▶ 조선6사 수급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두산엔진, 'LNG선용 엔진' 덕 3% 이익률 회복

<http://nr.ii/GvfaB>

지난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362억 원, 영업이익 72억 원을 각각 기록.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은 13%, 영업이익은 300%가량 증가  
ME-GI(MAN Electronic Gas-Injection) 엔진을 비롯한 LNG선용 제품의 수주를 늘린 것이 실적 개선. LNG선용 엔진 비중을 지난해 11%, 올해 16%까지 확대  
LNG선용 엔진의 경우 일반 제품보다 판매 가격이 20%가량 비싸

▶ 현대중공업 보도

△ 최길선 현대중 회장 "군산조선소, 2019년 재가동 준비"

<http://nr.ii/VocvN>

문 대통령은 최 회장에게 "요즘 (조선) 경기가 살아나면서 (선박 건조) 수주도 늘어났다고 들었다"라며 "그동안 조선 경기가 오랫동안 좋지 않아서 많이 고생했다"고 위로  
최 회장은 "(선박 건조) 수주량이 늘어났다고 느껴지지만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난 정도로 통계의 착시 현상"이라며 "수주량을 유지하더라도 일감을 모두 끝내고 나면 일거리가 점점 떨어져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라고 답함  
최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경기가 좋을 때 조선소 근처 노동 인구를 모두 고용해 고용 창출을 이뤘는데 이전 일자리를 잃었다"하면서도 "지난해 발주량이 예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상황이 호전될 2019년까지 견디겠다"라고 설명

▷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 현대중공업 경영진 배임혐의

<http://nr.ii/2m9ms>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나오는 가운데, 재가동으로 기업의 손실이 입혀질 경우 현대중공업 경영진에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

△ 현대중공업 초대형 LPG운반선 수주...최대 6억달러 규모

<http://nr.ii/aqsmX>

세계적 에너지기업 비틀(VITOL)사로부터 초대형 LP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 계약  
현대중공업은 8만4천m³급 LPG운반선 2척을 우선 만들어 2019년 상반기까지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  
향후 옵션 형식으로 추가될 일감까지 포함하면 수주 규모는 최대 8척, 6억달러(약 6천700억원)에 이를  
이 LPG운반선은 연료 절감형 선형과 평형수 처리장치, 황산화물 규제 대응 기술 등이 적용되는 친환경 선박

△ 현대중 "초대형 컨선 1~2주내 입찰결과 발표...수주 확신"

<http://nr.ii/gfi2X>

현대중공업이 유럽의 한 선사로부터 2만2000TEU급 컨테이너선 수주를 놓고 중국 조선소와 최종 경쟁  
해당 컨테이너선의 수주 업체가 1~2주 내에 최종 선정 예상  
선주측이 LNG-디젤 듀얼엔진을 넣을 것인지, LNG레디(향후 LNG 연료추진 엔진 탑재를 위해 공간을 비워두는 설계)를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진  
주요 외신은 유럽의 한 선사로부터 2만TEU급 컨테이너선 6척(추가 옵션 3척)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 정몽준, 현대로보틱스 지분을 25.8%...최대 주주 지배력 확대

<http://nr.ii/U2n1B>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 지분율을 10.2%에서 25.8%로 확대했다고 2일 공식  
정 이사장은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 등의 주식 등으로 1조2114억원을 현물 출자해 현대로보틱스의 신주 297만9567주를 배정

▷ 정몽준, 현대중공업 잔여 지분 처리 어떻게

<http://nr.ii/J2CDT>

집계 결과 현대로보틱스가 발행할 예정이던 435만 1665주의 97.58%에 해당하는 424만 6196주가 최종 접수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청약 수량이 예정치를 밑돌음  
현대중공업 청약에는 발행 예정 주식수인 820만 주를 26만 3000주가량 상회하는 846만 3722주가 몰림. 청약율은 103.2%  
정 이사장이 남긴 현대중공업 지분 0.32%. 지난 2일 현대중공업 증가인 17만 7500원을 적용한 지분 0.32%의 가치는 약 320억 원  
현대로보틱스의 현재 주가(46만 5000원)를 감안할 때 320억 원으로 0.42%의 지분을 매입

▷ 현대중공업, 현대힘스 매각설... '왜'

<http://lnr.li/Mx1Mp>

현대중공업이 현대힘스 경영권이 포함된 지분 51%를 2,000~3,0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을 세웠으며, 인수자를 물색 중  
현대힘스는 2008년 현대중공업의 선박블럭 및 배관 제조부문을 분리해 설립

: 선박블럭과 배관, 조선기자재,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생산하고, 자재구매서비스와 병커링(선박 연료공급) 등도 영위

지난해 매출 2,343억원, 영업이익 160억원, 당기순이익 160억원을 기록: 현대중공업의 알짜 자회사라는 평가

매각설 배경에 내부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새 정부 들어 경제계 핵심 화두로 떠오른 상황

현대중공업은 제기된 매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언급

현대중공업 측은 현대힘스의 내부거래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오너일가가 따로 지분을 보유한 것이 아닌, 현대중공업의 100% 자회사라는 이유

현행법상 일감을 나누기 규제 대상은 오너일가의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인 계열사로, 내부거래가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를 초과해야

▶ 삼성중공업 보도

△ '흑자전환' 삼성중공업, 2년5개월 만에 회사채 발행

<http://lnr.li/0OR9S>

삼성중공업이 2년5개월 만에 회사채를 발행: 1년 만기 회사채 600억여치를 사모

발행금리는 연 3.9%로 공모로 발행할 때보다 0.472%포인트가량 낮게 책정

▷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충돌예방 시스템 개발...12월 적용"

<http://lnr.li/SXsxs>

새 충돌예방 시스템 개발,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

▶ 대우조선해양 보도

△ 대우조선, 국산 잠수함 첫 수출

<http://lnr.li/9QBSb>

1988년 독일에서 기술을 인수받아 개발에 매진한 지 약 30년 만에 이룬 쾌거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1400t 급 잠수함 세 척 가운데 첫 번째 잠수함 인도

대우조선이 수주한 잠수함 3척의 금액은 약 11억 달러(약 1조3000억원)에 달해 국내 방산수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 대우조선 2분기 사상 최대 흑자?

<http://lnr.li/k6Eyp>

실상을 알고 보면 과거 회계법인의 보수적 회계 처리에 따른 착시효과로 완전한 업황 회복을 의미하는 숫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2분기 5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이 채권단 내부에서 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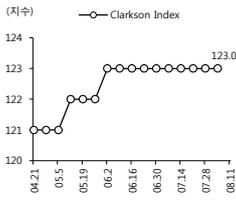
▷ 대우조선, 2~8일 회사채 주식청약 절차 실시

<http://lnr.li/vlgF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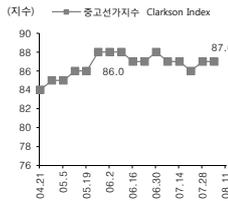
지난 4월 열린 사채권자집회에서 회사채의 50%이상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의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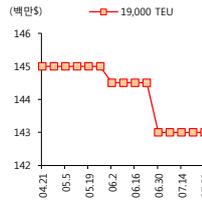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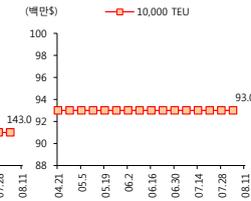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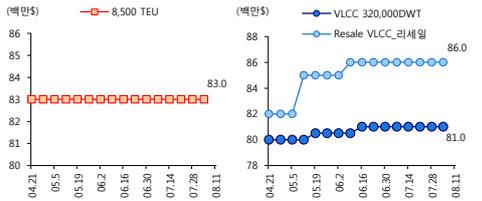
▶메가 울트라박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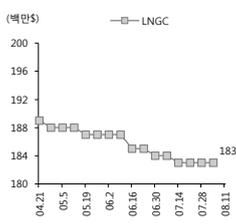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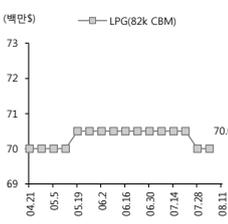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 ▶탱커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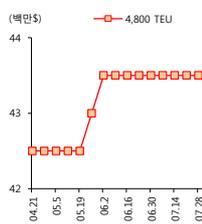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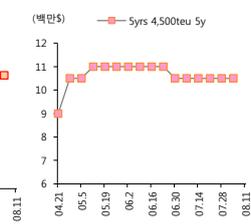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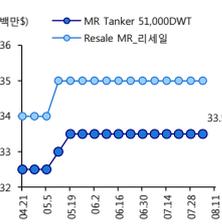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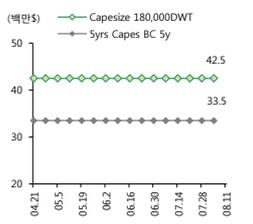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 중고선가 4,500teu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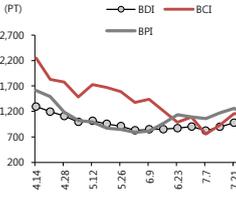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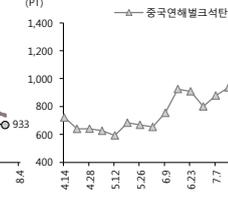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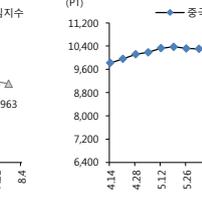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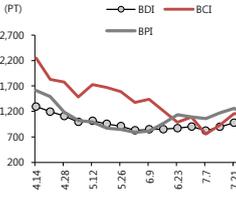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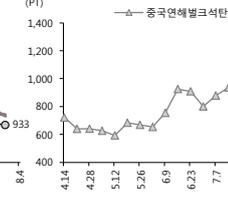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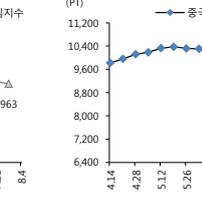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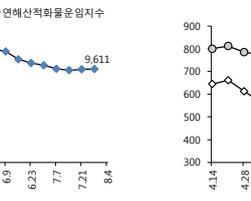
▶컨선 지표들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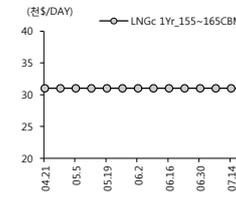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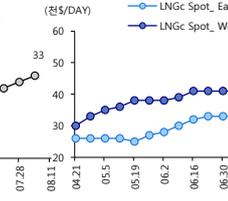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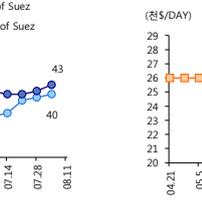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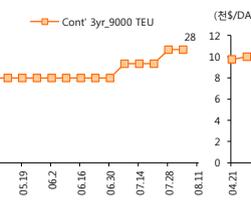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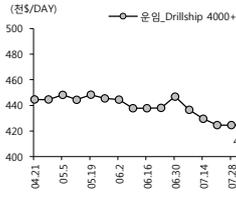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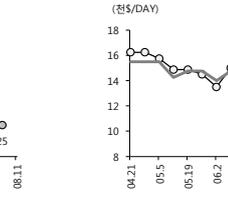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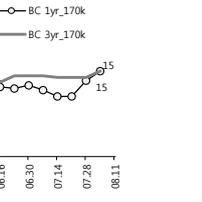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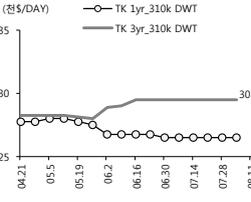
▶벌크선 - 케이프



▶탱커 - VLCC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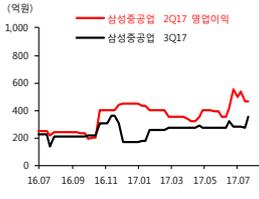


##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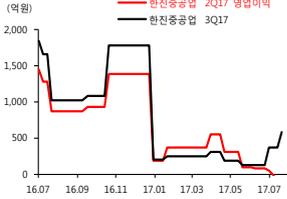
###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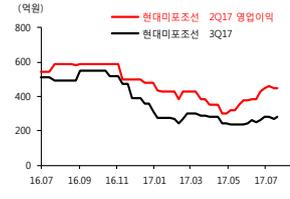
###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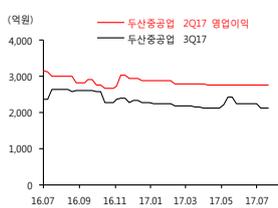
### ▶ 한진중공업



###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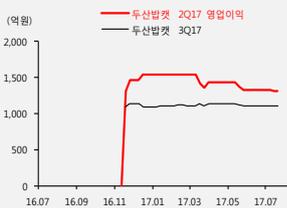
###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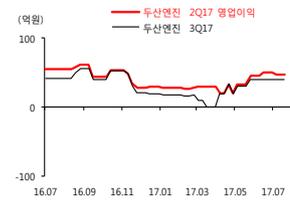
### ▶ 두산인프라코어



### ▶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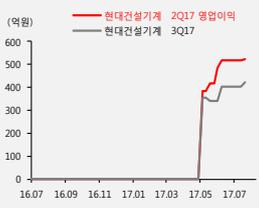
### ▶ 두산엔진



###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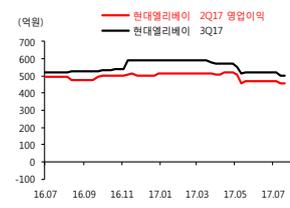
### ▶ 현대건설기계



### ▶ 현대로템



### ▶ 현대엘리베이터



### ▶ LS산전



### ▶ 성광벤드



### ▶ 태광



###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7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7.01	17.07.08	17.07.15	17.07.22	17.07.28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7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11,213	11,206	13,173	4,946	6,109	5,977	6,100	6,241	6,478	31%	6%	27.8	180,000
	삼성중공업	235	260	281	313	291	287	274	271	282	-10%	-3%	40.8	11,500
	현대미포조선	5,390	5,627	3,878	3,750	4,820	6,383	6,383	6,356	6,940	85%	44%	15.8	109,500
	한진중공업	454	454	108	-203	-269	-103	-103	-123	-123	적자	적자	-36.5	4,475
두산	두산중공업	1,966	1,739	1,490	1,433	1,454	1,464	1,411	1,425	1,425	-1%	-2%	14.6	20,800
	두산인프라코어	909	778	785	813	808	816	829	832	832	2%	3%	9.3	7,730
	두산엔진	170	188	409	172	178	203	193	193	198	15%	11%	20.1	3,985
기계	현대건설기계	0	0	0	25,906	28,411	29,191	29,191	30,679	30,732			11.6	356,500
	현대일렉트릭	0	0	0	26,837	27,046	27,560	27,560	28,368	28,256			11.5	326,000
	LS산전	3,382	3,385	3,593	3,563	3,673	3,673	3,674	3,706	3,862	8%	5%	14.9	57,700
	현대엘리베이터	5,703	5,703	5,580	5,387	5,326	5,326	5,326	5,351	5,351	-1%	0%	10.6	56,700
방산	현대로템	692	756	687	645	639	648	614	608	523	-19%	-18%	36.9	19,300
	한국항공우주	2,646	2,619	2,560	2,503	2,456	2,439	2,422	2,321	2,254	-10%	-8%	22.7	51,200
	한화테크윈	2,653	2,417	2,249	2,266	2,200	2,163	2,140	2,037	1,964	-13%	-11%	20.3	39,800
	LG넥스원	3,917	3,848	3,875	3,768	3,705	3,624	3,619	3,501	4,480	19%	21%	18.4	82,500
피팅	성광벤드	198	106	-27	-83	-75	-75	-75	-82	-82	적자	적자	-120.8	9,850
	태광	206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0%	0%	51.8	9,780
	하이록코리아	1,888	1,910	1,913	1,909	1,896	1,896	1,896	1,837	1,837	-4%	-3%	12.5	23,000

그룹	종목	2017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7.01	17.07.08	17.07.15	17.07.22	17.07.28	2017	2018	2017 PBR	
조선	현대중공업	233,823	231,775	309,552	209,808	207,712	207,239	207,239	207,352	208,977	3%	2%	0.9	
	삼성중공업	17,381	17,225	17,300	18,596	18,788	18,804	18,776	18,776	18,733	2%	1%	0.6	
	현대미포조선	109,658	108,677	109,721	113,674	113,175	116,105	116,105	116,073	116,735	6%	3%	0.9	
	한진중공업	11,120	11,120	11,076	8,806	8,453	8,833	8,833	8,810	8,810	-1%	4%	0.5	
두산	두산중공업	33,074	31,937	31,093	31,446	30,702	30,714	30,765	30,765	30,765	5%	7%	0.7	
	두산인프라코어	11,369	10,800	10,565	10,409	10,684	10,646	10,622	10,622	10,622	8%	9%	0.7	
	두산엔진	7,882	7,763	7,700	7,857	7,877	7,920	7,920	7,920	7,945	2%	2%	0.5	
기계	현대건설기계	0	0	0	233,248	231,663	231,663	231,665	231,665	231,741	13%	14%	1.5	
	현대일렉트릭	0	0	0	232,775	232,450	232,450	232,450	232,450	232,690	12%	13%	1.4	
	LS산전	38,873	38,865	39,211	39,138	38,940	38,940	38,938	38,874	38,960	10%	11%	0.0	
	현대엘리베이터	38,058	38,876	38,291	37,757	37,757	37,757	37,757	37,757	37,757	14%	15%	1.5	
방산	현대로템	16,972	17,125	17,049	17,061	17,059	17,066	17,042	17,035	16,964	3%	5%	1.1	
	한국항공우주	16,625	16,591	16,469	16,307	16,256	16,234	16,195	16,045	15,962	14%	16%	3.2	
	한화테크윈	47,208	48,838	46,958	45,433	45,667	45,520	45,502	45,387	45,234	4%	6%	0.9	
	LG넥스원	31,536	31,343	31,559	31,472	31,402	31,298	31,296	31,150	31,872	14%	13%	2.6	
피팅	성광벤드	16,603	16,496	16,529	16,512	16,540	16,540	16,540	16,540	16,540	0%	2%	0.6	
	태광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	2%	0.6	
	하이록코리아	23,495	23,868	24,035	24,001	23,849	23,849	23,849	23,776	23,776	8%	8%	1.0	

출처: Dataguide

키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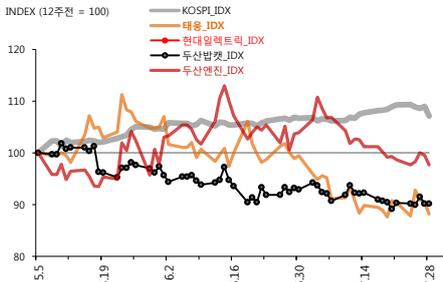
▶ 건설기계3사의 2Q17 잠정 실적발표: 두산밥캣 실망, 현대건설기계 사실상 서프라이즈, 두산인프라코어 서프라이즈

→ 그러나 하반기 최선호주는 두산밥캣: 자세한 내용은 오늘 함께 발간되는 "뜨거운 건설기계 시장, 좀 더 뜨거운 밥캣" 참조

회사	계정	2Q16	3Q16	4Q16	1Q17	2Q17@	y-y %	q-q %	◎컨센서스 07월27일	당사◎	차이 (◎/◎)
두산인프라코어	매출액	1,618	1,302	1,376	1,562	1,773	10%	14%	1,751	1,859	1.3%
	영업이익	173	106	100	148	215	24%	45%	178	191	20.4%
	지배주주순이익	200	43	-227	52	60	-70%	17%	63	74	-3.5%
	영업이익률	10.7%	8.1%	7.3%	9.5%	12.1%	1.4%p	2.6%p	10.2%	10.3%	1.9%p
	지배주주순이익률	12.3%	3.3%	-16.5%	3.3%	3.4%	-8.9%p	0.1%p	3.6%	4.0%	-0.2%p
두산밥캣	매출액	1,175	879	921	930	1,075	-9%	16%	1,101	1,096	-1.9%
	영업이익	150	109	70	93	136	-9%	46%	130	129	5.3%
	지배주주순이익	63	48	8	46	49	-22%	8%	69	69	-28.6%
	영업이익률	12.8%	12.4%	7.6%	10.0%	12.6%	-0.1%p	2.6%p	11.8%	11.8%	0.9%p
	지배주주순이익률	5.4%	5.4%	0.8%	4.9%	4.6%	-0.8%p	-0.3%p	6.3%	6.3%	-1.7%p
현대건설기계	매출액	536	480	436	644	683	28%	6%	626	707	-3%
	영업이익	32	20	10	43	36	10%	-16%	50	56	-36%
	지배주주순이익	33	9	18	25	27	-18%	6%	35	38	-29%
	영업이익률	6.0%	4.1%	2.2%	6.6%	5.2%	-0.8%p	-1.4%p	8.0%	7.9%	-2.7%p
	순이익률	6.1%	1.8%	4.2%	3.9%	3.9%	-2.2%p	0.0%p	5.6%	5.3%	-1.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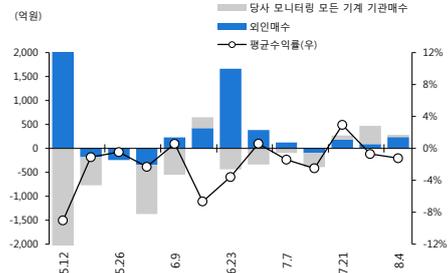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률



기계 업종 뉴스

두산그룹 & 두산중공업

▷ 두산엔진 사겠다

<http://lnr.li/nEUxm>

최근 한 제조업체가 두산엔진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두산 측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 두산엔진은 두산중공업이 지분 42.7%를 보유 두산엔진은 지난해 두산그룹 실무선에서 밸류에이션 등의 작업을 통해 매각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짐  
지난 2일 마감한 STX엔진 매각 입찰에도 무려 9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 매각 대상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 약 87%  
두산 측도 두산엔진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제시한 금액과 이견이 커 시큰둥한 분위기

△ 철도공단, 진접선 전동차 50량 계약... 2019년 말 인수

<http://lnr.li/AkbZX>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진접선 복선전철(당고개~진접, 서울 지하철 4호선 연장구간)에 투입할 전동차 50량(10량 5개 편성) 도입 계약 공단은 7월 21일 KTX 차량 등 제작 경험이 풍부한 현대로템과 전동차 50량 공급계약을 439억(낙찰률 63.2%)에 체결  
총 28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진접선이 개통될 예정인 2019년 말까지 공단에 납품될 예정

△ 현대로템, 차입금 4400억 갚았다

<http://lnr.li/YW95C>

현대로템이 올해 상반기 차입금을 4400억 원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 6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178%까지 낮아짐  
지난 2분기 말 연결 기준 총 차입금은 1조 3720억 원이다. 현금성 자산 4110억 원을 감안한 순차입금은 9610억 원  
철도, 플랜트 부문의 실적 악화로 2015년 말 기준 2조 원을 넘어섰던 총 차입금은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  
: 수주를 늘리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을 상당 부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결과

한진중공업

△ 한진중공업,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축조공사 수주 유력

<http://lnr.li/5M0a9>

조달청이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요로 집행한 이 공사 개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80.799%인 242억239만9700원을 적어내 적격심사 1위

▲ 부산항-인천항-광양항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http://lnr.li/i2N5k>

부산항-인천항-광양항 등 3개 항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이행  
부산항의 북항에 호텔, 오피스하우스, 환승센터 등을 세워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이 핵심  
인천항 내항 1·8 부두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통해 인천항을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변모  
이 사업은 2020년 착공: 인천항재개발사업은 소음·분진 등의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인천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추진

건설기계

▲ 두산인프라코어 BW 일반청약 경쟁률 23.3대 1...8조 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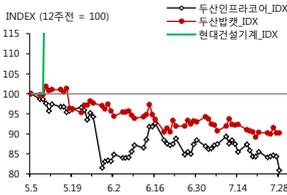
<http://lnr.li/apJIT>

BW는 만기 5년에 3년 후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표면금리 2%, 만기 금리 4.75%를 제시

신주인수권 행사금액은 8030원으로 리픽싱(Refixing) 조건이 붙어 주가가 하락해도 80%까지 행사금액 조정이 가능: 최대 6420원까지 낮출 수 있음

건설장비

▶ 한국시장 상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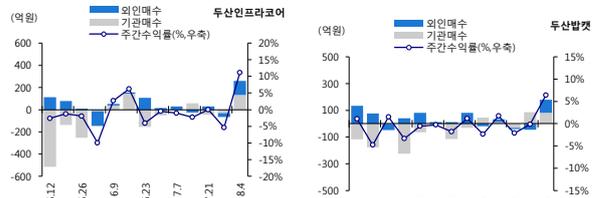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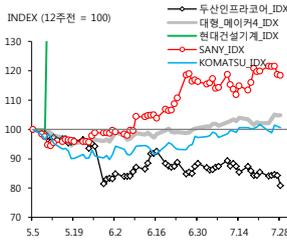


건설장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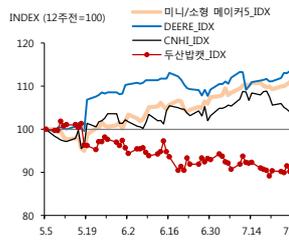
▶ 건설장비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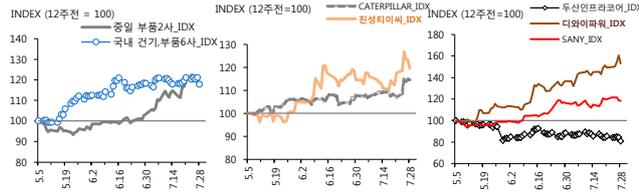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쯔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밭켓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풍력

▶ 한국 풍력 부품5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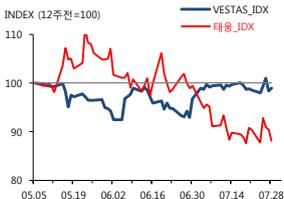


▶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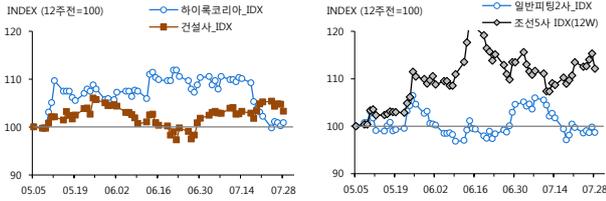
풍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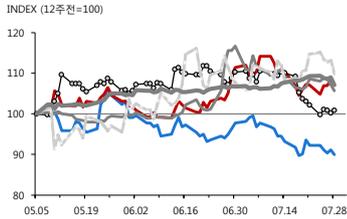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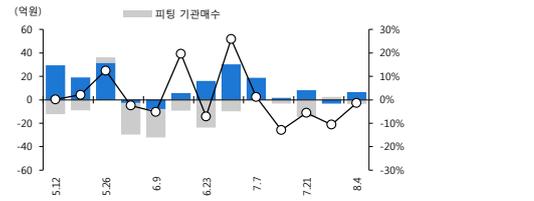
▶ 피팅 VS 전방1 건설



▶ 피팅 및 밸브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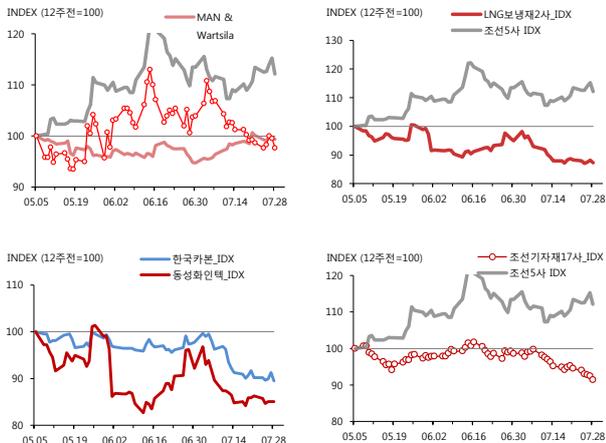
피팅업 수급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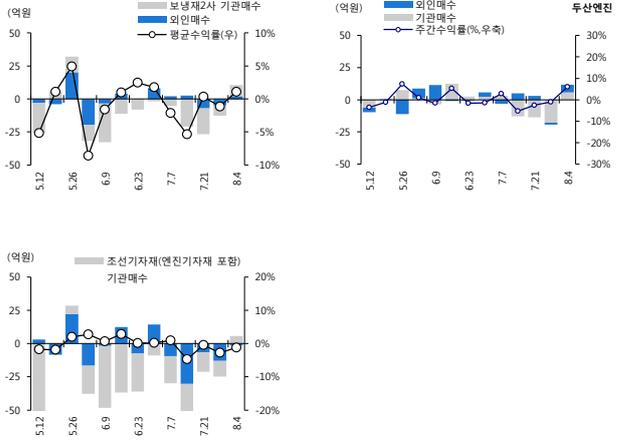
▶ 엔진3사



조선기자재 수급

▶ 보냉재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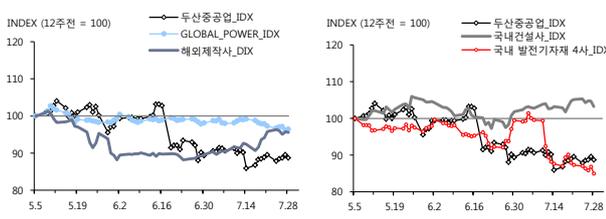
▶ 두산엔진



발전 및 발전기자재

▶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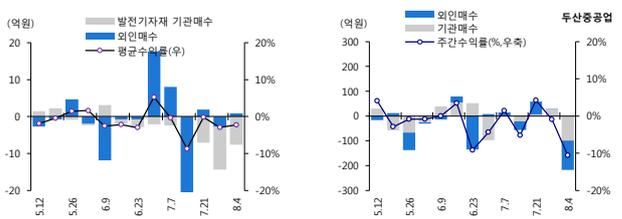
▶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vs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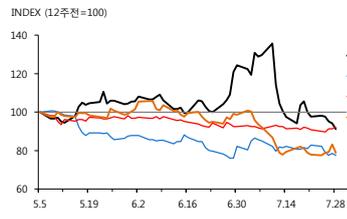
발전업 수급

▶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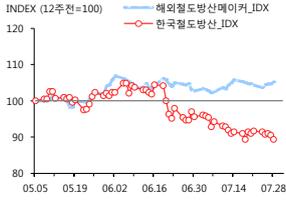


▶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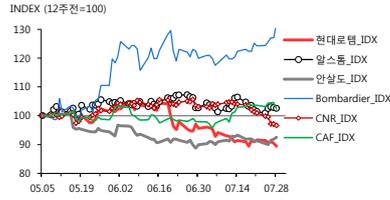


철도/승강기

▶ 철도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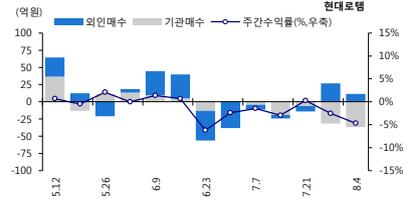


▶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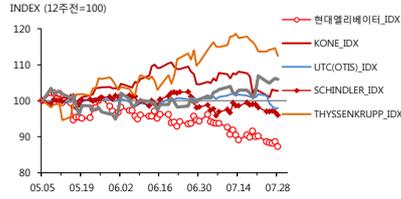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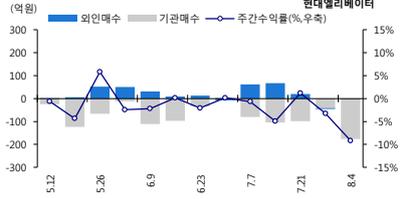
▶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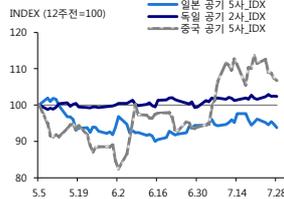


공작기계

▶ 두산인프라~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명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건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4년5월12일부터 적용)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자의건 비율(%)	89.2%	10.8%	-